



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7.29.(금) 조간 2022.7.28.(목) 11:00	배포 일시	2022. 7.28.(목) 06:00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책임자	과 장 임창현 (044-200-5560)
		담당자	사무관 조영복 (044-200-5571)

한·중, 풍요로운 서해바다 만들기 공동방류행사 개최

-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양국 참조기 등 560만 마리 방류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중국 농업농촌부(부장 탕런젠)와 함께 7월 29일(금) 15시에 전라남도 목포시와 중국 산둥성 연태시에서 '제4차 한·중 공동 수산종자 방류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 방류행사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행사로 개최된다.

해양수산부와 중국 정부는 2017년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합동으로 어린 물고기를 방류하는 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고, 2018년부터 세차례에 걸쳐 '한·중 공동 수산종자 방류행사'를 개최해왔다. 2018년에는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2019년에는 중국 칭다오에서 방류행사를 개최했고, 2021년에는 인천광역시와 중국 연태시에서 화상행사로 방류행사를 개최하였다.

*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입어규모, 입어절차 및 조업건조 합의, 조업질서 유지 및 해양생물자원 상태와 보존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정부 간 위원회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과 중국 농업농촌부 마유샹 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과 중국 산둥성 연태시에서 '한·중 공동 수산종자 방류행사'가 개최된다. 인터넷을 통해 이원생중계 공유행사로 진행되며, 식전 행사로 수산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수산종자 방류 영상을 상영할 예정이다.

이번 방류행사에서는 서해안 지역에서 경제적 가치가 높고 한·중 양국 어업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회유성 어종을 방류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참조기 1만 마리를, 중국에서는 갑오징어, 말쥐치 등 80만 마리를 방류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행사 이전인 6월, 7월에 걸쳐 충청남도 태안군, 전라남도 영광군, 전라북도 부안군 연안에서 참조기, 꽃게, 말쥐치 등 480만 마리를 방류하였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한·중 공동 수산종자 방류행사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서해 수산자원을 공동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는 데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풍요로운 서해에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한·중 공동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더욱 확대하는 등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총괄>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책임자	과 장	임창현 (044-200-5561)
		담당자	사무관	조영복 (044-200-5571)
<협조>	국립수산과학원 연근해자원과	책임자	과 장	임양재 (051-720-2270)
		담당자	연구관	김희용 (051-720-2280)



참고 1

2022년 한중 공동 치어방류행사 개요

◇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격상하여 행사 진행

* 제17차 어공위('17.11) 및 대통령 중국 순방시 '18.부터 양국 고위급(실장급) 행사로 추진하기로 합의

- (일시/장소) `22. 7. 29. (금) 15:00~16:30 (한국시간)
(韓) 목포 서해어업관리단 체육관, (中) 산둥성 연태시 국제컨벤션센터
- (행사주재) (中) 농업농촌부 부부장(주관), (韓) 해양수산부 차관
- (진행방식) 영상공유 플랫폼을 통한 이원 생중계
- (행사내용) 주요내빈 소개 → 환영사 → 축사 → 양국 각각 종묘방류*

시간(분)	내 용	비 고
15:00 ~ 15:10(10')	개회사 및 주요내빈 소개	사회 : 中 어업어정관리국장(실장급)
15:10 ~ 15:30(20')	환영사	(中) 산둥성 부성장, (韓) 목포시장
15:30 ~ 15:50(20')	축사	(中) 부부장, (韓) 차관
15:50 ~ 16:00(10')	폐회사(공식행사 종료)	사회 : 中 국장
16:00 ~ 16:30(30')	이동(지도선 부두) 및 방류	양국 각각 진행

* 한국 : 참조기 등 1만 마리(행사 이전에 참조기, 꽃게 등 480만 마리 기 방류)
중국 : 갑오징어, 말쥐치, 조피볼락 등 80만 마리

□ 그간 개최 현황

- 2018년 한중 공동치어방류행사('18.7.24. / 전남 영광군 향화도항)
 - 수산정책실장, 중국농업부 어업국장 등 160여명 참석, 참조기 및 부세 각 10만 마리 방류(안마도 부근 외해)
- 2019년 한중 공동치어방류행사('19.6.26. / 중국 칭다오 올림픽요트부두)
 - 수산정책실장, 중국농업부 어업국장 등 150여명 참석, 대하 및 꽃게 등 40만 마리 방류(중국 칭다오 외해)
 - * '20년도 한중 공동치어방류행사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미개최
- 2021년 한중 공동치어방류행사('21.7.9. / 韓 인천시, 中 연태시 이원생중계)
 - (韓) 수산정책실장, 인천시, 수협 등 25명, (中) 어업어정관리국장, 외교부, 연태시 등 300여명 참석, 참조기 등 100만 마리 방류

참고 2

2021년 한·중 공동 치어방류행사 사진

